소방 당국, 전문가 조사 후 안전조치 예정  
  
  
  
이미지투데이 제공경남 김해시 주촌면의 한 공장 탱크에서 황화수소가 유출돼 소방 당국 등이 상황 파악에 나섰다.19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오전 9시 37분께 주촌면 내삼리의 한 공장에서 황화수소가 유출됐다. 현재는 현장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인근 공장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린 상태다.이에 김해시는 사건 발생 두 시간 뒤인 오전 11시 36분께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안전재난문자를 보냈다. 장유동과 주촌면 일부 지역이 사고 발생 영향권에 드는 것으로 전해진다.경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냄새가 난다는 인근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다. 지금 화학 전문가 등이 현장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황화수소는 눈과 호흡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문가가 도착하면 조사를 통해 안전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